

2022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2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미래비전 계획서

제1장 조직 소개

[조직 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허인영 이사장(사단법인 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 김건우 이사(좋은씨앗교회 담임목사) 신경철 이사(주. 유진로봇 대표), 심명식 이사(좋은씨앗교회) 이경림 상임이사 박경현 감사(성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을중 감사(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설립년월일	2015.3.30.	상근직원 수	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77, 1층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iseum.or.kr	모법인명	없음
공익법인	Y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조직의 설립목적			
가족의 수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용자자녀들이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로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실천 및 경제적 지원을 하며, 교정 복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수용자자녀 지원,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용자자녀를 위한 복지, 상담 및 지원사업 2. 수용자자녀를 위한 후원사업 3. 수용자자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 4. 수용자자녀에 대한 홍보·국민 인식 개선 사업 5.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국·내외 단체와 교류활동			

[조직의 재무제표 및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연말)	2019년 (연말)	2020년(연말)
총 자산	197	145	351
부채	2	3	4
순자산			
기본재산	50	50	50
보통재산	145	92	297
수익 총계	458	686	989
비용 총계	505	740	783

[주요 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한문장으로 기술)
수용자자녀지원	수용자자녀의 통합적 개별지원, 성장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멘토 활동 통한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자녀와 가족의 심리 상담, 양육자교육, 면회지원, 가족상담, 출소자 가족여행 등을 통해 가족관계회복
인권옹호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조사연구를 통한 수용자자녀 인권옹호

[키워드]



제 2 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문제정의]

1.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취약 위기아동(Invisible Children)

사회 구조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기준 또한 빠르게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의 변화가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사회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오늘의 사회복지의 시스템 (발굴-지원-개선) 에서 시대적으로 더 집중해야 할 단계의 영역은 '발굴' 단계이다. 지원 영역과 개선 영역 대비, 사회복지가 필요한 문제 영역에 대한 인식과 조사, 발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취약 계층 본인이 자신의 '취약' 상황을 호소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와 소통 능력의 부재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스스로가 자신들의 취약성을 숨기거나 감추고 싶어하는 '취약 계층'이야 말로,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는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존재한다. 바로 수용자자녀가 우리사회 가장 보이지 않는 취약 계층이며 스스로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invisible children이다.

스스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수용자자녀의 고통은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일차원적으로 겪지만, 경제적 고통 해결 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함께, 향후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며, 매우 복합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단순한 개별 영역의 개별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지난 5년간 세움의 경험과 성과는 바로 사회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성공적 접근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2. 아동 인권보호의 필요성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양육할 능력을 갖춘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동은 보호 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그러나 우리사회 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제2의 피해자', '잊혀진 피해자'로 살아가는 위기아동이 있다.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0.5%의 수용자자녀!'**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할 '모든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자녀들은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감을 경험하며 '가족 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경제적 위기, 심리정서적 불안정, 트라우마, 가족해체 등 여러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쉽다. 2017년 세움이 국가인권위원회 위탁을 받아 진행한 「수용자자녀 인권현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용자자녀들은 철저히 복지사각지대에서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자녀'도 대한민국 아동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복지적 지원과 인권이 보호받아 할 권리가 있다.

3. 수용자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1) 경제적 어려움

국내외 수용자자녀 연구조사에 의하면 가족의 수감으로 남겨진 수용자자녀와 가족은 일반 가정에 비해 5배 높은 빈곤을 경험하며 아동의 양육자의 경제활동 또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세움에 의뢰된 수용자자녀들의 경우에도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 주거환경의 불안정 등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청과 욕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7년 실태조사 양육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지원에 대해서 **'아무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용자자녀의 가족이 76.2%**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1.9%, '한부모가정지원' 5.3%, '긴급복지지원' 4.5%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정은 11.9%였는데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수급비율이 2.3%에 비해 5배나 높아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수용자자녀는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아동으로 이들이 겪는 경제적 위기 환경은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수용자자녀들이 처한 긴급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2) 심리정서적 어려움

2015년 세움이 국내최초로 수용자자녀 20명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건강검진(심리검사와 정밀검사)을 실시한 결과 **약 40%의 아동이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¹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수용자자녀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으며 고통받는다. 특히 부모의 체포과정을 목격하게 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2017년 실태조사의 수용자자녀 설문조사에서 **약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다고 응답해 아동인권 침해의 문제 뿐 아니라 수용자자녀가 마음의 상처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자자녀들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세움의 상담에 참여한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 이후 심리정서적 어려움 외에도 가족관계나 친구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부적응, 신체화 증상, 자살충동 등 심리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²

"요즘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식욕이 없고 다 귀찮고 힘들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풍부해서 밤새 운 적이 있어요."

"아빠 들어가고 아무도 없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참여자1

"한 맺히고 불안하고, 심란해요. 열등감, 자괴감이 들어요."

초등 저학년 때의 내가 그리워요. 시험을 잘 봐도 감흥이 없고, 죽고 싶어요."

힘든데 말할 친구들이 없을 때 공허해요. '체념한 보살'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2

¹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회복으로 가는길에서 만난 사람들 2021, p9

²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회복으로 가는길에서 만난 사람들 2021, p.33

4. 위기아동 보호의 필요성

수용자자녀 5명 중 1명 정도가 심리정서적 문제와 학교부적응 문제에 직면하고, 10명 중 1명 정도는 비행으로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유형 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용자자녀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³

수용자자녀들은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이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 청소년'에 해당된다. 부모의 수감이라는 위기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자칫 소년법상의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되거나 부모의 범죄를 대물림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용자자녀의 범죄연루 확률은 평균 약 32%로 나타났다.⁴ 따라서 수용자자녀 지원을 통해 부모의 수감 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요인들을 차단하고 수용자자녀들을 보호한다면 궁극적으로 '제2의 피해자'인 수용자자녀들이 환경적 요소들로 인해 부모의 길을 답습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수용자의 재범 예방

2017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용자자녀의 가정은 일반가정보다 이혼율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과 동시에 한부모 가족이 되거나 양육자가 2-3회 변경되기도 한다. 친인척에게 맡겨지기도 하고, 가정위탁, 시설에 보호되기도 한다. 미성년 자녀들끼리 살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수용자자녀들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반해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부모의 수감으로 안정된 가정형태가 깨어지면서 수용자자녀의 가정은 가정해체 위기에 놓이게 된다.

가족은 수용자 및 출소자의 중요한 지지자원으로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다.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때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출소 후 건강한 시민으로 가정에 복귀하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돌아갈 가정이 있는 출소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 안정적으로 건강한 사회시민으로 사회복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국 가족은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된다.

³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자녀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 pp.8-9

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움 5주년 사회적가치측정, 2020. p.23

세움은 비록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면회지원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복역률은 약 25.4%이지만 세움의 지원을 받았던 수용자가족의 출소 3년 이내 재복역은 5.7%로 나타났다⁵ 결국 수용자자녀와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지원은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⁵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움 5주년 사회적가치측정, 2020. p.24.

프레임워크

1. 프레임워크 소개

세움의 미션은 '수용자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며 미션 달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문제해결모델을 가지고 있다.

1) 타겟 : 부모의 수용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수용자자녀

세움에서 진행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 중 25.4%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명수로 환산하면 연간 약 54,000명(누계)의 미성년 수용자자녀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약 0.5%에 해당한다.

1차 타겟 집단 :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간 54,000명의 수용자자녀 중 상존하는 일일 평균 수는 약 22,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약 50%정도가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을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수감 후 경제적 빈곤과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세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위기 수용자자녀는 최소 일평균 약 11,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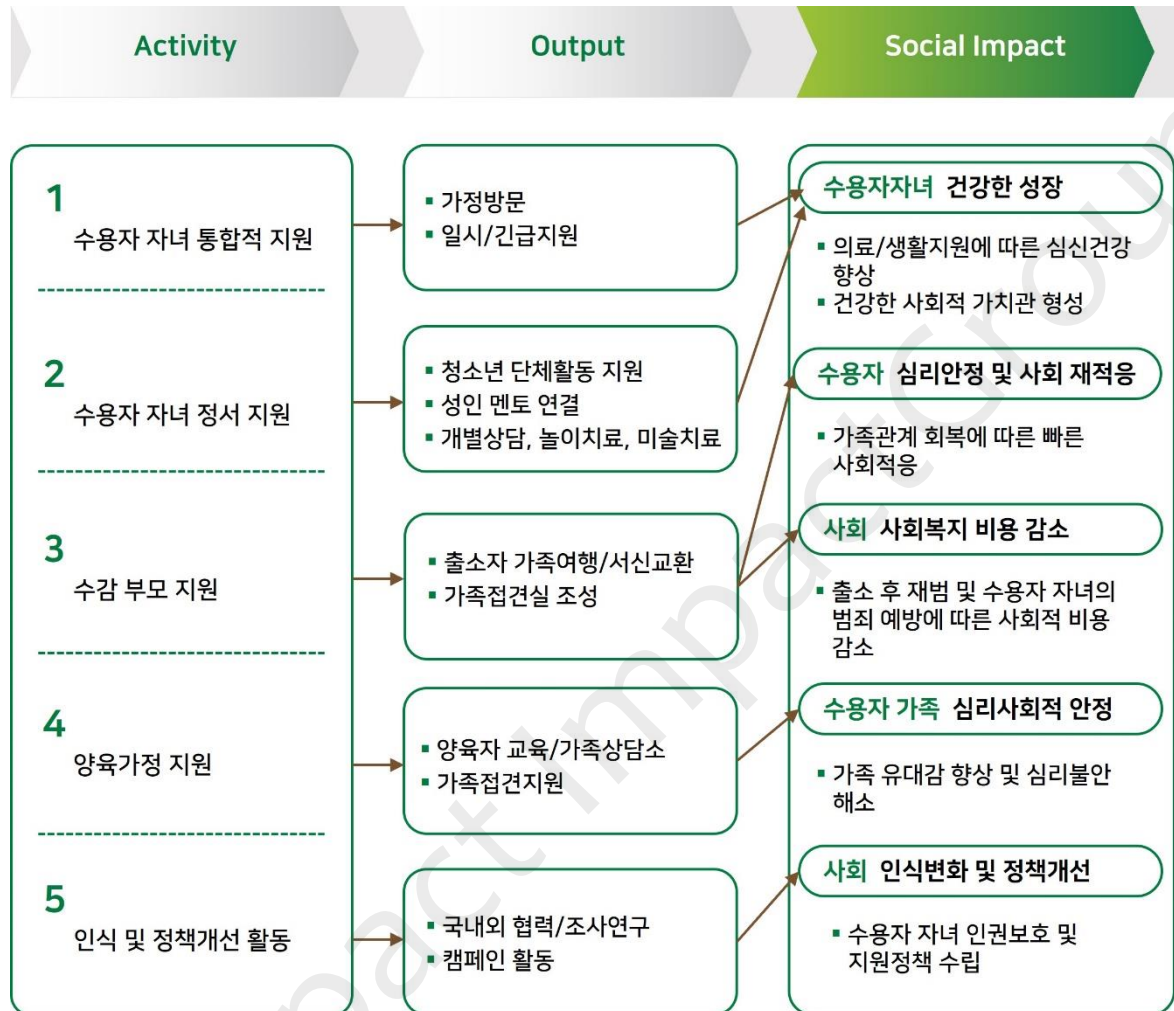
전체 수용자자녀 중 1차 타겟 집단은 고위험 위기수용자자녀 일평균 11,000명으로 볼 수 있다.

2 차 타겟 집단 :

부모의 수용을 경험한 모든 아동

2)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1) 수용자자녀 문제해결 모델



[그림1] 수용자자녀 문제해결 모델

수용자자녀 통합적 지원 및 정서지원

가정방문, 성장지원비, 긴급일시지원, 심리상담, 청소년활동, 멘토링활동 등 아동의 성장발달단계와 욕구에 따라 수용자자녀가 위기환경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용자 가족 지원

면회지원, 양육자 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출소 후 재범 및 수용자자녀 범죄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한다.

인식 및 정책개선 활동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국내외 네트워크 및 조사연구를 통해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및 정책기반을 다진다.

(2) 수용자자녀 지원프로세스



[그림2]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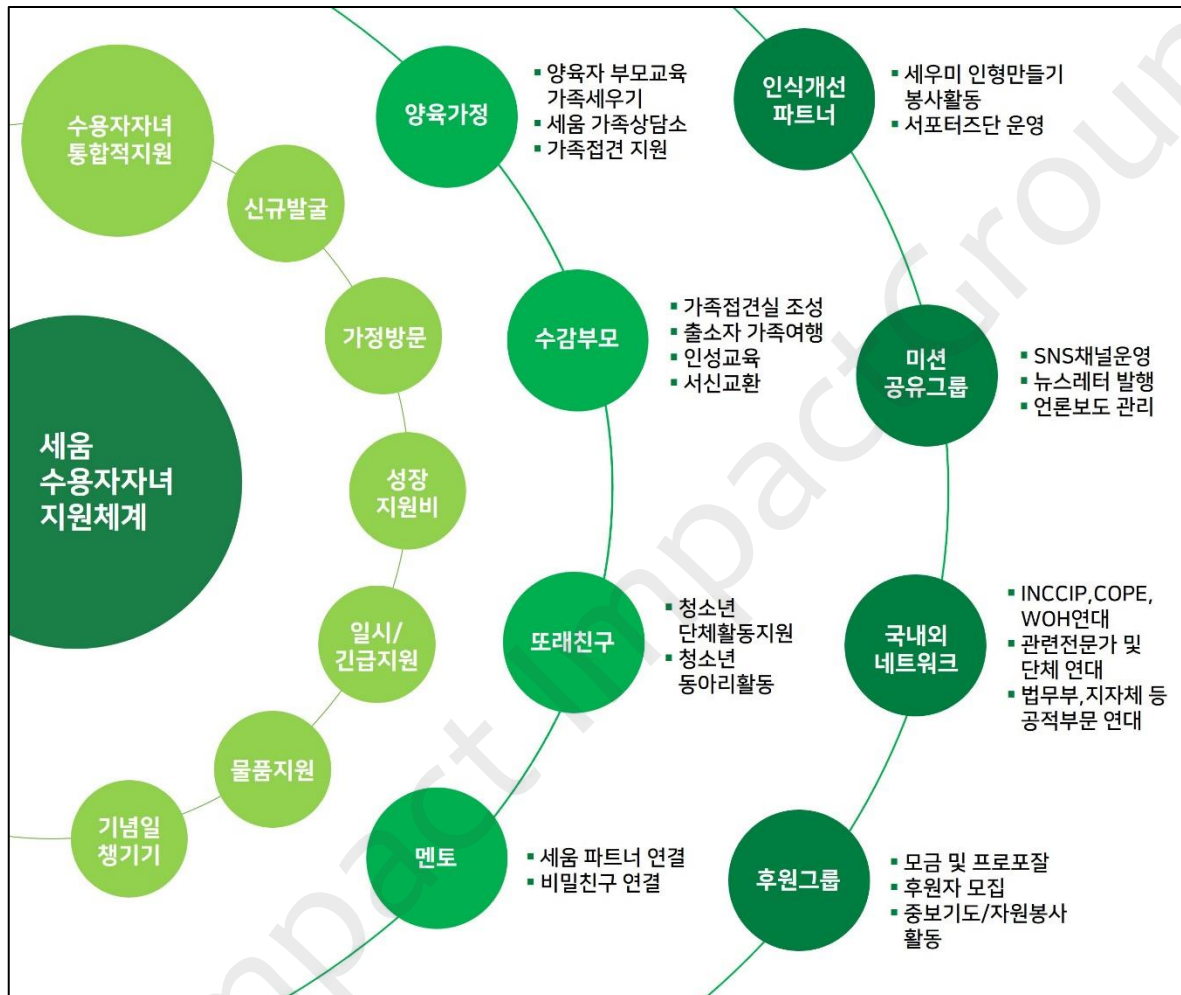
수용자자녀 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전국의 54개 교도소, 구치소, 공공기관, 아동지원 관련기관 등의 신규사례 추천을 받거나 수용자 편지 및 가족의 직접 지원 요청으로 신규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규사례가 접수되면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각 가정마다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규참여자로 결정되면 수용자 출소까지 성장지원비, 긴급생계비 지원, 선물지원, 멘토링, 청소년 동아리 등 당사자 활동을 통해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상담, 가족상담 및 양육자 교육, 면회지원 등을 통해 수용자자녀 가정의 가족 유대감 강화 및 가족관계회복을 지원한다.

(3)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세움의 문제해결모델은 '수용자자녀' 개별지원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정책을 변화시키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방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3]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2.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1) 대상의 혁신성

2015년 세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아동인권을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는 없었다. 기존 프레임은 수용자의 교정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지원하는 접근방식으로 수용자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움은 국내최초로 수용자자녀지원을 아동인권중심의 아동복지관점에서 접근했다.

세움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잊혀진 제2의 피해자'로 그림자처럼 묻혀 있던 수용자자녀의 인권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세움이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수용자자녀를 통합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최초의 전문 기관이라는 대상의 혁신성이 있다.

2) 민관협력 거버넌스 접근을 통한 정책변화의 혁신성

세움은 법무부, 검찰청, 교정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적극적 민관협력을 통해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법무부와 개별교도소를 통해 수용자자녀를 추천 받고 수용자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7년에는 세움에서 교도소 내 면회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아동중심의 면회환경을 구축했다.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구축 시범사업과 공간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교도소에 배포하였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전국 54개 교도소 중 47개의 교도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마련되었다.

또한 2021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MOU를 체결 부모의 구속초기 수용자자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세움은 이와 같이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변화까지 이루어내는 혁신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3) 접근방식의 혁신성

세움은 그동안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만나고 지원한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연구, 다양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등 활동을 통해 수용자자녀지원 기관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사업초기 수용자자녀지원에 대한 이해조차 전무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세움은 수용자자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실천모델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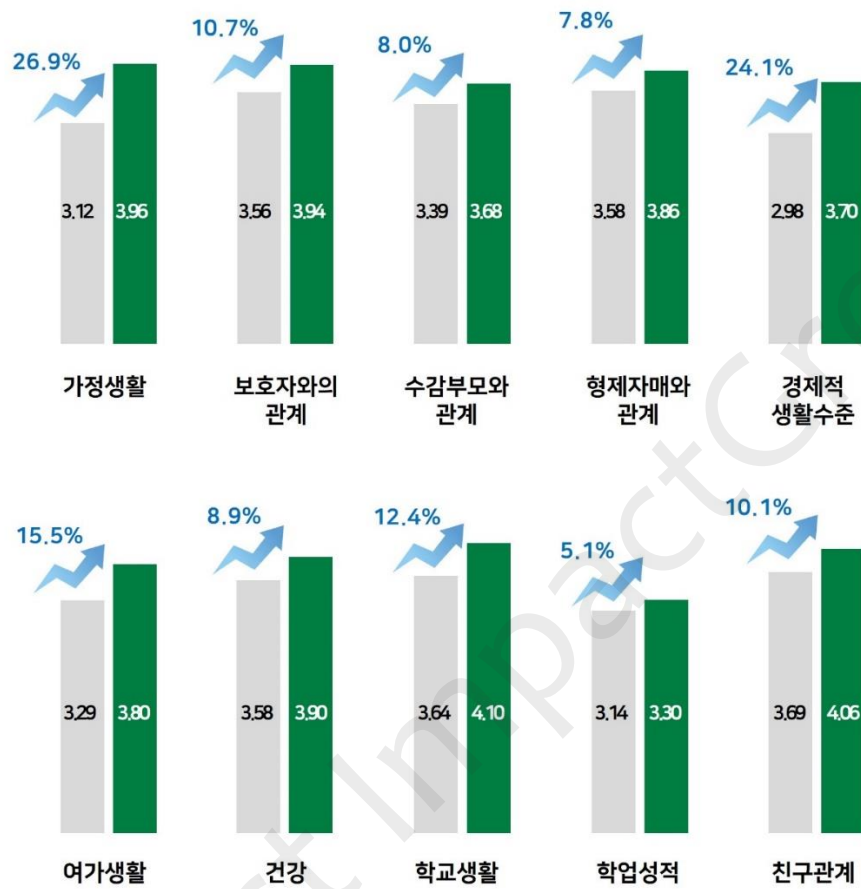
수용자자녀의 아동인권옹호,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수용자자녀 실태 및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적 실천의 네 가지 축으로 균형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세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움은 '작지만 강한조직'으로 복지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와 적극적 협업, 유연성을 가진 열려있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3년만에 안정적 운영이 가능했다..

3.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 1) 국내 최초로 아동인권 관점에 근거한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을 시작, 2018년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시민인권상'을 수상, 201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 1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복지부문 대상 수상, 2021년 포스코 청암재단의 사회봉사상 수상 등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의 필요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 2) 2017년 국내 최초 수용자자녀 현황 국가통계구축을 통해서 2019년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입소 시 자녀현황 조사 의무화가 시작되는 초석을 마련했다.
- 3) 국내 최초로 교정시설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시범 설치하였다. 이후 법무부에서 동일한 매뉴얼과 모델을 도입하여 2021년 현재 전국 교정시설 54개소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47개소가 설치 수용 부모를 만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 및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여 2019년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개정(제41조 3항(미성년자녀는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 제53조 2(수용자의 미성년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1항 신설되었다.
- 5) 2020년 법무부 교정본부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 참여 2021년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내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 신설로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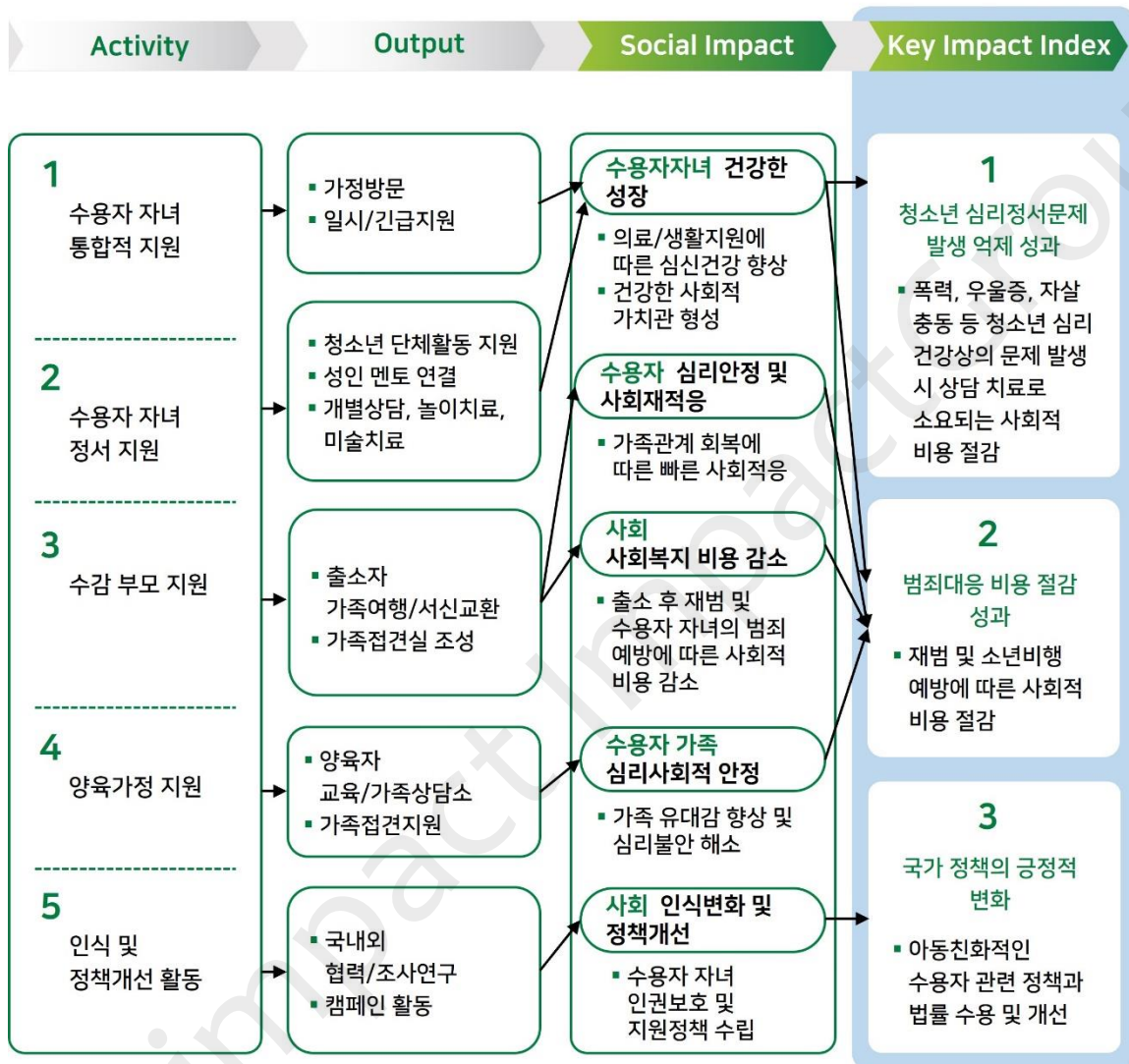
- 6) 수용자 자녀 통합적 개별지원을 통해서 수용자자녀들의 유의미한 성장변화의 Impact 가 있었다.



[그림4] 세움의 프로그램 참여전·후 수용자자녀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2021

- 7) 세움의 프레임워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측정(2020년) 결과 참여 아동의 심리정서문제 발생억제, 범죄대응 비용절감 효과, 국가 정책의 변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Social Value Map



[그림5] 세움의 사회적 가치 맵

제3장 미래 비전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溫) ON' 구축사업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1. 더 가까이 더 깊게

1) 더 가까이

진우(가명/고1/ 남) 삼남매를 만난지도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1년에 한 두번. 진우 삼남매와 양육자이신 조부모님을 만나러
서울에서 먼 지방에 사는 진우네 집을 방문합니다.
함께 진우네 집근처 산으로 등산을 다녀오기도 하고 함께 맛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나누며 한해의 회포를 나누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날은 아이들도, 평소 입 무거우신 할아버지도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마음 속 깊숙이 묻어 둔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 놓는 날입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삼남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고
엄마와도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이별을 해야 했던 삼남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린 손주들을 품으시고
당신들의 삶을 내려놓으셔야 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지.
나는 그냥 투명인간이야.
선생님 오셔야 묵혀 둔 내 마음 이야기 하는 날이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진우네를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항상 아쉽고 무겁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매년 다음 만날 날을 이야기하시며 기다리신다. 몇 해가 지난 지금에서야 진우네 가족이 조금씩 안정된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초반에만 해도 촘촘한 만남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워낙 먼 지방이라 일년에 한 두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 조금만 더 가까운 곳에 진우네가 살았더라면... 세움이 진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더라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텐데...

세움은 지난 6년간의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전국의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만나며 지원하였다. **수용자자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기관으로써 세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정기관과 참여자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이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지방에 사는 아이들과 가족을 만나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집중지원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021년 세움은 부산지방검찰청 및 부산구치소와 MOU를 체결하고 경상권 중심의 초기 구속상태의 수용자자녀가 신속히 발굴되어 세움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올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혼자 지내는 25명의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을 요청하였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위기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집중적인 세움의 역할이 요청되는 정책적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1년 하반기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용자자녀지원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수용자자녀를 신속히 발굴하고 세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서울지방교정청(강원, 수도권)을 포함해 대구지방교정청(경상권), 광주지방교정청(전라권), 대전지방교정청(충청권) 4개 권역에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세움은 진우네와 같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위기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촘촘히 만나며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고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세움은 기존에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각 권역별로 확대 비수도권 수용자자녀들이 지역 안에서 개별적 집중지원, 멘토링, 당사자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세움(溫)ON'**을 구축하고자 한다.

2) 더 깊게 -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

세움의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의 사회적가치측정 결과에 따르면, 세움의 지원을 받은 수용자자녀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후 가정생활, 보호자와의 관계 등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위기실태조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와 비교해보면,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에 대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참여 전에는 위기 취약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참여 후 **일반 청소년의** 응답 수준으로 변화하였다(사회적가치측정 p45).

부모의 수감 후 갑작스런 양육 환경의 변화는 수용자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한다.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으며 위기를 경험하는 수용자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와 지지체계 안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자원과 기회를 더 가까이 더 깊게 제공**하려고 한다.

2. 더 많이 더 넓게

1)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

가족의 수감으로 수용자자녀와 가족은 '범죄자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편견 앞에 위축되기 쉽다.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감은 수용자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자기자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들며 우리사회 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자신을 숨기고 살아간다.

가족과 나를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 가족문화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수용자자녀와 가족이 마치 가해자가 된 것과 같은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해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더욱 큰 위기 앞에 놓이기도 한다. 잊혀진 피해자인 수용자자녀는 부모의 죄로 인해 사람들의 비난과 편견을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비대면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지원체계 안에서는 선뜻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수용자자녀와 가족이 비대면 상담을 받으며 당면한 위기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의 수용자자녀 지원공간이 필요하다.

가상공간 안에서는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수용자자녀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통하여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담장 안과 밖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 19 팬데믹은 오프라인 모임의 한계성을 드러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참여자들의 온오프라인의 유연성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시대임을 증거하고 있다.

Zoom을 통한 화상 모임에서 더 나아가 아동,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간 메타버스의 비대면적 공간을 구축 더 많은 수용자자녀들을 발굴 지원하려고 한다.

2) 비대면 콘텐츠 개발로 인식개선 활동 확장

세움은 그동안 수용자자녀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 진행했다. 오프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일반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인식개선 콘텐츠와 활동을 제공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온라인 매개체를 활용하여 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내외 시민들이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하여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여 수용자자녀지원 법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용자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동안 세움의 임팩트 있는 성공경험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없는 한계를 “더 가까이 더 깊게” 통해서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 “더 많이 더 넓게” 통해서 수용자자녀 인권옹호와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함으로 수용자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한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1. 권역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 온(ON) 구축

2021년 5월 11일 교정본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하반기 4개 지방교정청 중 한곳에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팀 신설 운영 후 2022년 4개 지방교정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교도소 및 지방교정청에서 발굴된 아동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연계하여 지원 예정이라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서울교정청 내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팀이 신설되었으며 담당 교도관이 세움에서 교육을 받고 함께 가정방문을 다니며 내년부터 4개 지방 교정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지방교정청에서 의뢰받은 아동을 세움 온(ON) 권역센터를 통해 통합지원을 하려고 한다. 전국의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참여자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한다.

2. 사업내용

세움은 지난 6년간 수용자자녀 지원 경험을 토대로 Scale out 함과 동시에 Scale up을 통한 Social Impact를 창출하고자 한다. 현재 참여아동은 전체 세움이 정의한 타겟집단 11,000 중 1.4%의 아동에 불과(월150명)하나, 5개 통합지원센터(사이버 공간 포함)가 구축되면 5.5% (월 600명)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 지역 중심의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세움 온(ON) 사업내용

(1) 긴급위기 지원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에 따른 수용자자녀 긴급위기지원, 공적자원 정보제공,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 통합적 개별지원(사례관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이 수용자자녀 욕구에 맞춘 개별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신규 사례가 발굴되면 절차에 따라 가정방문, 경제적, 사회적서비스, 면회지원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양육자 지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첫 방문에서부터 최종 종결(수용자 출소 후 최소 3-6개월까지)까지 모니터링하며 가족회복과 가족관계증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심리지원 : 권역별 상담실 운영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한 심리치료, 심리평가를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단계와 상태에 맞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에 연계된 상담기관들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법률지원

아동의 인권 옹호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에 반하는 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한다. 이를 위해 민간 공익 법률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및 검찰청 원과 소통한다.

(5) 수용자자녀 인권옹호

유엔아동권리 권고⁶에 근거 정부정책의 모니터링 및 일반인의 인식개선 활동, 관련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이를 통해 수용자자녀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

(6) 교육훈련 및 연구

정부부처, 관련단체 공무원, 관계자 등에게 수용자자녀 현황 및 실태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알린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등 종사자) 교육을 통해 수용자자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수용자자녀의 부모수용 경험에 따른 다양한 연구 등으로

⁶ 35. 위원회는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장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사회심리적 영향평가와 적응에 관한 예방대책수립, 정책제언 등을 한다.

(7) **민관협력으로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교정본부 내 4개 지방교정청의 '위기수용자 지원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위기수용자자녀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방검찰청과 연계하여 구속초기의 수용자의 수용자자녀 추천을 통해 조기 개입을 통해 수용자자녀의 초기 심리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대응한다.

(8) **지역사회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기업, 대학, 복지기관,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멘토링 사업 진행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그림6] 가칭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 통합지원센터 세움 온(ON)

3.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이 더 넓게 만나기

1) 수용자자녀 눈높이에 맞는 가상공간 구축으로 접근성 확대

수용자자녀와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수용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한다. 심지어 수용자 역시 자녀들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사회적인 편견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하여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다가 초기 개입의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초기 진입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가상공간(사이버) 앱 개발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접근의 용이성을 확대한다. 세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상담, 청소년활동, 수용부모에 대한 정보, 부모수용으로 인해서 아동, 양육자가 궁금해하는 교정정책, 법률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용자자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앱을 개발하여 거부감을 없애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쌓여진 신뢰관계 형성으로 더 깊게 그리고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한다.

현재 세움이 단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SNS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한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수용자자녀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이버공간 안에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수용자자녀 관련 자료들이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을 넘어 세계와 함께 하는 수용자자녀 인권옹호

가상공간의 구축은 지역 권역센터 간의 긴밀한 연결을 가능케 하여 온.오프라인을 유연하게 오가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개체와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 4개 권역의 대면 서비스와 활동의 제한을 가상공간 안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권역별로 '따로 또 같이'를 가능하게 한다. 가상공간안에서 수용자자녀들의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로진학, 상담, 동아리모임, 멘토 연결을 한다.

또한 수용자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 활동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사이버 전시와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을 확장하며 참여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로 가상 공간 안에서 일반인들과 수용자자녀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자녀 지원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단체들 COPE(Children of Prisoner EU),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와 시공간을 넘어서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정보교환, 국제세미나, 캠페인, 조사연구, 교류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수용자자녀 인권옹호 플랫폼을 사이버공간에 구축한다.

4. 미래비전

세움은 2020년 설립 5주년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5주년을 준비하며 세움비전 2025는 선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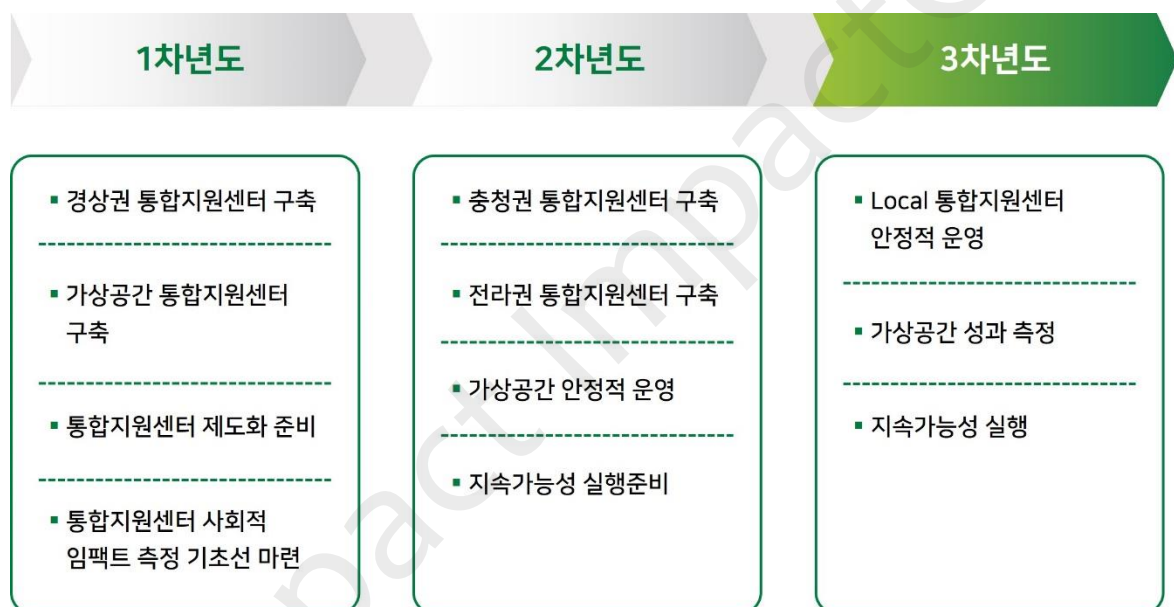


[그림7] 세움비전 2025

지난 5년 동안의 세움의 비전이었던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앞으로의 5년은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플랫폼 강화 및 전문화의 비전**을 세웠다. 그에 따른 전략목표 중 하나가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 환경 조성'**이며, 세부적으로는 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이다. 그 동안은 수용자자녀지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Local 통합지원센터를 4개 권역과 가상공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지원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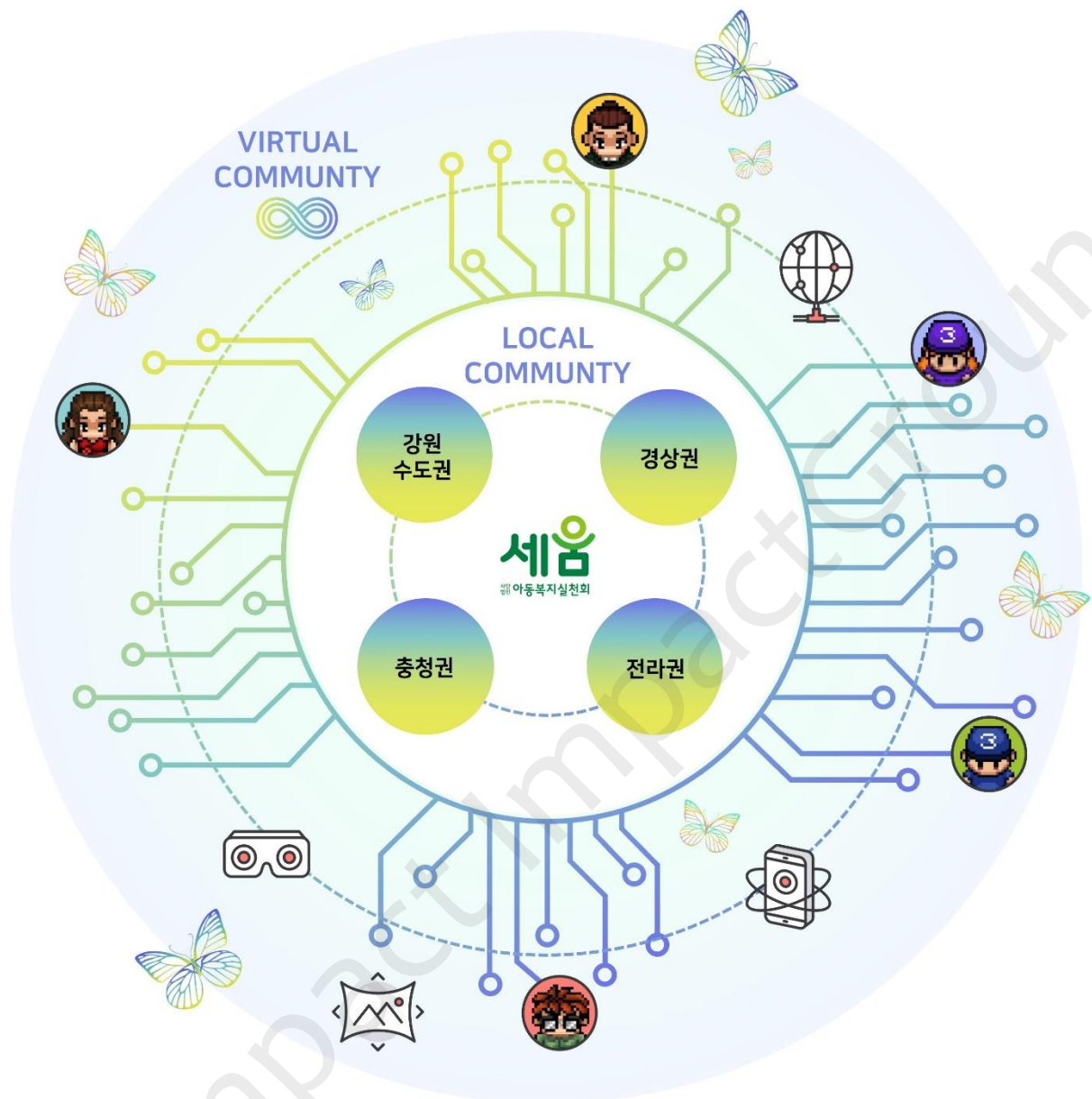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세움은 현재 수용자자녀 지원의 지역적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지역이라는 빈칸을 공백이 아닌 한계가 없는 꿈,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단계별로 4개 권역과 가상공간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그림8] 단계별 미래비전

미래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위기 수용자권리옹호를 위한 세움 온(ON)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9]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 온(ON) 모형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1.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촘촘한 Community 구축을 통한 위기수용자자녀의 접근성 확대

부모의 수감과 동시에 수용자자녀들은 다양한 위기환경에 노출되면서 경제적 빈곤, 심리 정서문제 등 부정적 경험을 하며 자칫 청소년 비행, 범죄의 대물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이고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움의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는, 세움의 수용자자녀 지원 사업이 수용자자녀의 심리정서문제 발생을 억제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며 가족관계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현재 세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 150명 정도의 수용자자녀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Local의 4개 권역과 가상공간 구축으로 수용자자녀의 접근성 확대를 통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2.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통합

위기 수용자자녀들이 각 지역 내에서 집중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받으면서 긴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은 수용부모가 출소 후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가치측정에 따르면 세움의 지원으로 수용자자녀의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관계회복은 강화를 통한 가족해체를 방지한다.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정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한다.

3.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생태환경 변화

그동안은 수용자자녀 인식개선 캠페인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초기인 2015년에 비해 현재 수용자자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 안에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회적 편견이 우리 사회 내 깊숙하게 존재하고 있다.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수도권 외 전국 4개 권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 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가상공간의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한 을 통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수용자자녀와 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일반시민들이 수용자자녀 인식개선 활동 참여를 통해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세움 사업의 효과성은 참여자와 가족들이 지원 전과 후에 보여준 변화와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제 세움은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매년 늘어나는 지원 요청과 꾸준한 인식개선과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실로 나타난 제도권 안에서의 협력 모델의 시행은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5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가상공간의 구축 및 활용은 세움의 성공 경험을 확장하여 지역으로 인해 생기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일이 될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상호보완적인 만남으로 수용자자녀의 서비스 접근성과 낙인감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용자자녀들을, 더 깊게(Scale-Out), 더 넓게(Scale-Up) 만날 수 있다. 현재 당면한 지역의 한계로 인해 생기는 문제의 해결, 곧 세움이 2025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권리옹호와 플랫폼 강화 및 전문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 온(ON) 구축사업의 단계별 확장과정은 다음과 같다.

위기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스케일아웃을 통한 스케일업 단계

스케일업 단계	준비기	정착기		안정확대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				
추진과제				지속가능성 탐색기	실행기
타겟인원 (직접지원) 11,000명	월150명(1.4%)	월200명(1.9%)	월350명(3.2%)	월500명(4.6%)	월600명(5.5%)
		-경상권 50명 추가	-전라권 50명 추가 -충청권 50명 추가	-서비스 인원 증가 (지역별 증가)	-지역별 서비스 150명*4개 권역
권역센터 구축	-서울·수도권 중심	-경상권 권역센터 구축 -권역별 사회적 지지체계구축 준비	-전라·충청권 권역센터 구축 -권역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권역센터 안정 운영 -권역별 사회적 지지체계 안정	-스케일업 확대기
디지털 기술 활용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세움TV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가상공간 구축 -통합 데이터베이스 적용	-가상공간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확대활용	-가상공간 및 통합 데이터 베이스의 안정적 운영	-스케일업 확대기
인식개선/네트워크	-인식개선 성과측정마련 -인식개선 캠페인 -국내외 세미나	-가상공간 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 및 시행 -지역 내 캠페인 -국내외 세미나	-가상공간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운영 -지역 내 캠페인 확대운영 -국내외 세미나	-지역별, 가상공간 내 인식개선 캠페인 콘텐츠 및 유명방안의 다양화 -국내외 세미나	-INCCIP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진행)
정책변화	-정책변화 측정도구 마련 -정책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정책변화를 위한 협의체 실행	-조사연구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법제도 준비	-법제도화 실행 및 마련	-법제도화 정착

권역센터구축, 디지털 기술활용, 인식개선 및 네트워크, 정책변화 유도

4개 카데고리를 통한 수용자자녀 권리옹호 스케일업안아웃 단계를 통해서



1) 서비스 지원 참여자 수의 증가로 위기 수용자자녀의 사각지대 감소와 수용자자녀의 인식개선 확대

2015년 처음 시작한 수용자자녀지원 사업은 현재 2021년 기준 매월 150여명의 수용자자녀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기존의 서울 수도권 뿐 아니라 대구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경상권의 수용자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월평균 50명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가상공간 앱을 개발 운영하여 약200명 정도의 수용자자녀와 가족, 후원자, 일반시민이 가상공간에서 소통하며 활동한다.

2차년도에는 광주지방교정청과 대전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전라권과 충청권의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및 확대 운영한다. 각 권역별로 월평균 50명의 수용자자녀를 추가로 지원하여 전체 약 350명 정도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3차년도에는 전국의 4개 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된 결과로 각 권역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용자자녀의 수가 최대 월 평균 500명까지 지원하고 최대 1,000명의 수용자자녀와 후원자, 일반시민이 가상공간에서 함께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지역 내에서 조직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조사연구와 국내외 세미나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정책적 변화와 법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2) 지속가능성 및 출구전략

(1) 5개 권역별 사회적지지체계 구축

5개 권역별로 위기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지원하며 각 지역마다 세움 서포터즈를 발굴하고 운영한다. 세움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세움의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권역별 지지체계를 확대 구축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적극적 수용자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모금활동을 기획 운영한다.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일반시민들과 관련 전문기관 및 개인들이 온라인 콘텐츠와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용자자녀지원 기금

세움은 조직의 지속가능과 자립을 위해 고민하며 그동안 국내 최초 수용자자녀 지원 기금(Children with the Incarcerated Impact Fund) 마련을 위해 고민해왔다. SIB 펀드와 관련해 전문가를 모시고 내부역량강화교육을 받기도 하고 해외사례에 대해 정보를 접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내 최초로 수용자자녀지원 기금 마련을 출구전략으로 세우고 구체적으로 전문가 교육, 자문과 더불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단체, 개인 발굴을 통해 기금을 마련 수용자자녀가堂堂하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1.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참여 기회 확대

1) 온라인 상담

세움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용자자녀와 가족은 그 어느 대상보다 비밀보장에 민감하다. 당사자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사회적인 편견과 만나 점점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더 숨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역사회와 대면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준비가 되지 않은 참여자들에게는 가상공간이 안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수용자자녀들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조차 할 수 없었던 마음의 비밀을 사이버 상담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능하게 한다. 수용자자녀들은 수용 부모의 체포 현장 목격에서부터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부모의 존재 때문에 트라우마와 여러가지 심리정서적인 증상들을 나타낸다. 가상공간에서 일반상담과 심리검사를 비롯해 놀이, 미술, 음악, 독서, 연극 등 매개체를 활용한 통합적 예술치료는 미래 상담 영역에서 가상으로 참여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2) 아동 청소년의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코로나 위기에서 많은 제약이 된 오프라인 모임이 가상공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만남의

장으로 열릴 수 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매년 모이는 인원과 장소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상공간안에서 청소년 참여자들은 게임을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으며, 마음껏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올리고, 웹툰, 애니메이션, 사진, 음악, 영화 등 여러가지 매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권역 별 모임에서 나아가 전국에 있는 수용자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가상공간에서 캠프를 즐길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양육자의 부재와 역할 부족,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수용자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과 진로지도도 가능하게 한다. 인생의 힘든 문턱을 넘은 성인이 수용자자녀들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세움 파트너와의 모임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3)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한 세움으로 탈바꿈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현재 세움이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활동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시공간을 뛰어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움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뉴스레터, 카카오톡과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세움의 미션에 동참하는 많은 후원자, 멘토를 교육하고 훈련하여 매칭 시키는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참여자와 참여자간, 참여자와 후원자, 각 협력하는 민관의 기관들이 연결되어 소통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세움 10주년이 되는 해에 세움이 이사국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제단체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에서 세움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역시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가상공간 구축 및 운영

세움은 매년 증가하는 참여자와 후원자,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하반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MRM/SCRM)을 구축하여 활용 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전국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권역별로 확대될 때 후원자와 참여자 간의 결연과 서비스 내용을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여자와 후원자 관리의 디지털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조사연구, 성과측정 및 모금 홍보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용자자녀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앱을 개발할 것이다.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각종 증빙서류들을 쉽게 주고 받으므로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앱과 가상공간 등의 구축과 활용은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溫) ON' 구축사업 2022년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의 범위와 접근방식

1. 핵심목표와 접근방식

1) 핵심 목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세움(溫)ON]과 가상공간을 구축,활용함으로써 사각지대 수용자 자녀를 최소화하고 '더 가까이 & 더 넓게' 위기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위기 수용자 자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보이지 않는 취약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자녀의 특성상 스스로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로 발굴의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6년간 세움은 수용자 자녀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며 교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위기 수용자 자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초기와 달리 수용자 자녀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정책변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수용자 자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서울에 법인을 두고 있는 세움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위기 수용자 자녀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정책변화의 성과로 비수도권 지역의 수용자 자녀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 되어지고 법무부에서는 2022년 상반기 안에 4개 권역 지방교정청 안에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위기 수용자 자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은 준비된 반면, 비수도권의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전문단체와 자원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세움은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 비수도권 수용자 자녀를 촘촘하게 '더 가까이,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수용자 자녀 통합지원센터[세움(溫)ON]를 권역별로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지역 안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를 좀더 촘촘하게 살필 수 있다. 또한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수용자 자녀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장 적기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취약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수용자 자녀와 가족들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 안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인식개선캠페인 활동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수용자 자녀와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용자 자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2) 범위와 접근 방식

타겟 집단 : 전국에 있는 연간 **54,000명**의 수용자 자녀 중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위기 수용자 자녀 **11,000명**

- 수용자 자녀 : 200명(정기지원, 실 인원 기준) –수도권 110명, 경상 50명, 충청 20명 전라 20명
(참고 : 형제 자매, 일시 지원, 수용자 가족 미포함 인원)
- 일반인 : 가상공간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자 약 5,000명

접근방식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제2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수용자 자녀가 부모의 수감이라는 위기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움은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연구,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하며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개별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실천모델을 만들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수용자 자녀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정책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① 민관협력 네트워크 실천모델을 통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확대운영

: 세움은 우리사회 불모지와 같았던 수용자 자녀 지원사업 초기부터 민관협력 네트워크 모델을 실천해왔다. 2017년 교정기관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고 이후 사회적 인식 및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4개 지방교정청 안에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신설하고 신속하게 위기 수용자 자녀를 발굴하여 자원연계 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2021년 하반기에는 서울지방교정청 안에 위기지원팀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22년에는 4개 권역 지방교정청 안에 위기지원팀을 모두 구축하고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전국의 위기 수용자 자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초기부터 민관협력 모델을 실천한 세움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의 수용자 자녀를 '더 가까이, 더 깊게' 만나서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②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통합적개별지원 확대

: 수도권에 법인을 두고 있는 세움은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지방에 거주하는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 한계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만나기에는 아무래도 지역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세움은 그동안 비수도권의 수용자 자녀와 가족이 지역 내에서 신속

히 발굴되고 지역 내 자원을 통해 촘촘히 지원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1차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경상권역에 수용자 자녀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세움의 수용자 자녀지원 모델인 통합적개별지원 방식으로 경상권역의 수용자 자녀를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③ 가상공간 구축과 운영

부모의 수감으로 수용자 자녀와 가족은 복합적인 위기환경에 노출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모의 수감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특성상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초기진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4개 권역에 수용자 자녀 통합지원센터 [세움(濫)ON]을 구축한다 해도 권역 내 모든 지역의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기에는 그 역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세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상공간 [세움타운(가칭)]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수용자 자녀를 위한 상담과 청소년 활동 등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 자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캠페인 활동을 가상공간 안에서 진행하여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계획서

1. 통합지원센터 세움(溫)ON 경상권 구축

1) 목표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위기수용자 자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자원과 지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세부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내용	세부계획 및 추진방법
공간세팅	① 지역선정 - 부산 예정 경상권 참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정청, 부산 검찰청, 부산 교도소, 대학교, 기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능성에 중점 2월~3월 초 지역조사 ② 임대형태 - 전월세 오피스텔 혹은 상가 건물 (보증금 2억 내외) - 온라인 사이트, 지역 부동산, 부산 지역 거주자 도움 등 정보 확인 후 거래 ③ 리모델링 - 공간 디자인, 리모델링 업체선정 - 사무공간, 상담실1, 회의실1 (20~30평내외) 3월 중순~4월 (2~3주 소요 예상) ④ 공간내외부세팅 - 사무용품, 가구 및 집기류 구매 및 설치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책상, 의자, 냉장고, 소파, 탁자, 문구 테이블, 정수기, 커피 머신, 에어컨, 블라인드, 인테리어 소품 등 ⑤ 차량구매 - 가정방문, 기관방문 등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 - 소형 (예, 아반떼) 차량으로 예산에 맞춰 구매 (3월 예정)

	⑥ 기타 행정업무 주소지 등록, 전화, 인터넷, 간판설치, 은행 계좌 개설 등
인력배치	① 인력구성 : 센터장(1인), 간사(1인) ② 선발 및 절차 - 홈페이지, SNS를 통해 채용 안내 공지 - 공고일정 : 2월 16일 이후 (2주간) - 서류전형 → 서류심사 → 면접전형 → 최종 선발 - 구비서류 : 이력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경력증명서, 인적성검사 결과지 각 1부 ③ 주요 업무 - 센터장 통합지원센터 경상권 총괄,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 사업계획, 사례관리 및 사업 진행, 사업 평가 및 보고, 대구 교정청, 교정기관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개발, 본부와의 의사소통 등 - 간사 통합지원센터 경상권 회계, 총무, 후원 및 물품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위기수용자 자녀 사례관리 업무 등 - 추진 일정 : 2월 중순~3월 초
교육 및 슈퍼비전	①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내용 : 세움의 미션과 가치, 비전 공유, 전체 사업 및 사업계획, 세움 관련 자료 스터디, 사례관리, SCRM 교육, 인사관련 행정업무, 업무 인수인계 - 내부 슈퍼비전 : 지역사업 총괄 부장 진행, 업무관련 진행사항 점검 - 장소 : 서울 본부 및 부산에서 진행 - 추진일정 : 3월 중순

2. 통합지원센터 확대운영

1) 목표

수용자 자녀 통합지원센터 [세움(溫)ON]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안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를 신속히 발굴하고 촘촘하게 지원하여 위기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사례관리	① 성장지원비 - 인원: 연185명(실인원/수도권 95명, 경상권 50명, 전라·충청권 40명) - 내용: 수용자 자녀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월1회) - 금액: 미취학·초등 월 7만원, 중·고등 10만원 등 - 수용자 자녀 당사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 월 1회 전화 및 문자 상담, 연 1회 가정방문 - 아동결연시스템(SCRM) 시스템 활용 관리 ② 신규 발굴 - 인원 : 연110명 (수도권 40명, 경상권 40명, 충청·전라권 30명) - 발굴경로: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정기관, 지방검찰청, 가족신청, 아동복지 관련기관, 공공기관 추천 등 - 절차: 추천의뢰>>전화상담>>가정방문>>사례회의>>최종선정>>사례관리 - 초기 가정방문 및 상담, 사례회의를 통한 참여자 선정 - 권역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지역 내 수용자 자녀를 집중 발굴하고 개입계획을 통해 지원. 지방교정청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팀과의 협업 중요 ③ 가정방문 - 정기방문: 신규가정방문 외 모든 참여자 가정을 최소 연1회 가정방문 - 집중지원: 긴급위기가 높은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자원연계 지역별로 사례관리 담당자가 참여자 가족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위기요소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집중적인 가정방문과 개입 지원 연 40가정*4회=160회 (수도권20가정, 경상권10가정, 충청·전라권10가정) - 가정방문 외 전화상담, SNS, 가상공간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

	④ 일시지원 •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에 따른 위기 수용자 자녀 긴급일시지원 • 내용: 긴급생계비, 의료지원, 진로지원 등 • 지원횟수: 연110회(수도권 60회, 경상권 30회, 충청·전라권 20회) ⑤ 물품지원: 생일, 어린이날, 명절 등 선물 또는 물품지원 (수시) • 참여자와 가정의 욕구를 반영한 물품지원
청소년활동	①찾아가는 멘토링 • 목적: 지역별 소그룹을 형성하고 청소년지도사와 매칭하여 정기모임을 진행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수용자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시행시기 : 3월 ~ 12월 • 횟수: 1그룹당 연 5회 진행 • 인원 : 초·중·고 청소년 40명 내외 • 방법 : 4개 권역별로 모임 구성 - 수도권(4그룹), 경상권(2그룹), 전라권(2그룹), 충청권(2그룹) - 1그룹당 최대 4명 소그룹 / 1회기 기본 5시간 진행 - 외부 전문 멘토 그룹과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진행 • 내용: 봉사활동, 관계 형성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기획한 자발적 공동체 프로그램, 여름연합캠프 등 ②대학생 멘토링 • 시행시기 : 3월~12월 • 경상권역의 중·고등 청소년을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1:1 매칭하여 진행되는 개별 멘토링 프로그램 • 인원: 20명 (경상권 거주 중·고등 청소년 10명, 대학생 멘토 10명) • 횟수: 월 1회 (팀당 연10회 예정) • 내용 : 진로탐색, 학습지원, 고민상담, 봉사활동, 문화체험 등 • 사전 멘토교육, 모니터링, 평가회를 통해 진행과정 점검
상담지원	• 시행시기 : 연중 • 인원: 40명(외부상담 15명, 세움상담소 20명, 특별프로그램 5명) • 횟수: 주1회 (회기당 50분/ 내담자별 평균 10회 ~ 15회 진행) • 내용 -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와 가족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지원 - 세움 상담실 및 외부 전문기관 연계 - 정기적인 상담전문가 슈퍼비전 (분기별 2회, 총 6회 진행)

가족지원

①면회지원

- 목적: 수용자 자녀의 부모를 만날 권리 보장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수용부모와 지속적 만남 지원
- 내용
 - 접견(일반접견, 가족접견, 장소변경접견) 진행을 위한 비용지원(실비)및 동행지원
 - 면회지원 후 만족도 설문조사, 모니터링
- 지원횟수: 연 60회(수도권 20회, 경상권 20회, 충청·전라권 20회)

②양육자 교육

- 시행시기 : 연중
- 인원 : 10가정(1가정당 8회기 진행)
- 내용
 -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 향상 및 부모-자녀 간 관계회복 기술 습득
 - 가정 상황에 따라 맞춤형 교육 진행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양육자-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등)
 - 교육 종결 후 가족선물 제공 (가족 캐리커처 액자)

③가족상담

- 시행시기 : 연중
- 인원 : 7가정 (1가정당 4회기 진행)
- 내용
 - 참여자 사전 면담을 통해 출소한 가정 중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할 경우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상담 진행
 - 가족상담 종결 후 가족 식사 외식권 전달
 - 가족상담 전 가족 개개인의 문제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경우 개별상담을 먼저 진행할 수 있음

④가족여행

- 시행시기 : 연중
- 인원 : 20가정 (1가정당 1회 지원)
- 내용
 - 출소한 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가족관계 회복에 욕구가 있는 가정 지원
 - 양육자교육 또는 가족상담 참여 후 신청한 가정 우선선정
 - 가족 수에 따른 차등 여행경비 지원(최대 55만원)
 - 참여자가 직접 일정, 예산을 포함한 가족여행 계획 후 진행
 - 여행 후 소감문 제출(사진, 영수증 포함)

3. 가상공간 세움 온 구축 및 운영

1) 목표

디지털 기술활용을 통해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모든 수용자 자녀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용자 자녀 지지체계를 확대함

2)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가상공간 및 인식개선	① 가상공간 세움타운(가칭) 구축 및 운영 • 목적: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초기진입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가 가상공간 안에서 수용자 자녀지원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 가상공간 메타버스 '세움타운(가칭)' 구축 - 수용자 자녀지원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운영: 수용자 자녀 상담, 청소년활동 - 수용자자녀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 활동을 통한 일반시민 유입. - 가상공간을 통한 상담, 청소년활동, 인식개선캠페인의 효과성 측정 연구조사 • 인원: 수용자 자녀 1차 타켓집단 11,000명 인식개선캠페인 서명활동 참여자 5,000명 • 진행: 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 특징 - 대면서비스와 활동의 제한을 극복하고 가상공간 안에서 '더 넓게, 긴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가능. - 국제 수용자 자녀지원 단체들과 시공간을 뛰어넘어 소통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여 국제 지지체계 강화. ② 홈페이지 (PC버전) 리뉴얼 및 모바일 버전 개발 운영 • 기존 SNS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사이버공간 구축 • 진행절차: 세움비전과 미션에 기반한 브랜딩 작업 >> 전문가 자문 >> 콘텐츠 기획 및 구성 >> 기술자문 및 업체 선정 >> 제작 및 활용 • 아카이브 구축: 그동안 축적된 수용자 자녀 관련 조사연구,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이버공간 안에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수용자 자녀 관련 자료들이 확대 재생산 가능

	③인식개선 캠페인 • 목적 - 위기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변화를 위해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 • 방법: 대학생 및 청년 캠페이너를 선정하고 교육하여 조별로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선정조건: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 활동을 통해 사회혁신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생 및 청년 • 인원: 총20명 (4개조 구성) • 교육과정: 발대식, 소양교육, 공익세션, 문제해결방법세션, 프로젝트 캠프 및 캠페인 진행, 해단식 등 • 내용 - 조별 캠페이너를 통한 인식개선캠페인 콘텐츠 개발 - 가상공간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일반시민들이 공간적 제약없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서명활동: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서명활동 진행 목표인원: 5천명 (4개조*1,250명=5천명) - 서명활동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인식개선 변화 측정
네트워크	①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 위기수용자 자녀지원팀: 법무부 교정본부, 4개 권역 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과의 협업을 통한 위기수용자 자녀 신속발굴 및 지원 • 구속초기 수용자 자녀지원: 지방검찰청, 교정기관과의 MOU를 통해 구속초기 수용자 자녀의 조기개입 및 서비스 제공 • 교정기관: 지방교정청 내 교정기관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한 발굴 및 지원 ②지역사회 수용자 자녀 지지체계 구축 • 지역 내 기업, 대학(한동대, 부산대 등), 복지기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 인력의 개발을 통한 지역 사회 내 자원과 지지체계 구축 ③수용자 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 국제 수용자자녀 연합 INCCIP: 이사회(월1회 온라인회의),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및 실행, 정보공유 등 • 유럽 수용자 자녀 지원 연대 COPE: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인식개선캠페인 '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 진행

④ 사회적 가치측정

- 목적: 수용자 자녀지원 사업의 소셜 임팩트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책변화 및 인식개선 기초자료로 확보
- 주제
 - 세움비전 2025 사업의 효과성 측정
 - 인식개선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인식변화 측정
- 진행: (주)한국사회가치평가

3) 마일스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구축	인력선발(2월~3월)									
	공간셋팅(3월~4월)									
	교육 및 슈퍼비전(3월~4월)									
가상공간 구축과 활용	인력선발(2월~3월)									
	가상공간 구축(3월~6월)									
	홈페이지 리뉴얼(3월~6월)									
						인식개선 캠페인(7월~12월)				
수용자 자녀지원	신규발굴, 통합적 개별지원, 찾아가는 멘토링 (3월~12월)									
수용자 가족지원	면회지원, 양육자교육, 가족상담, 출소자, 가족여행 (3월~12월)									

리스크 방지

위험요소와 대응방안

위험요소	대응방안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세움(溫) ON 실무자의 신규채용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 사업의 경험 부족	•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통해 수용자자녀지원 관련 노하우 전수 •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업무 내용의 공유와 협조 체계 구축 •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본부 지원 시스템 마련 - 기관방문, 후원자 연계, 네트워크 정보 등 지역 내 인적 자원 연계
가상공간 운영과 활용에 대한 기관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	• 단계별 접근을 통해 위험요소 최소화 • 1차년도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을 시범적으로 운영 • 메타버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 있는 전문가 단체와 협업 후 효과성과 현실가능성에 대한 검증 실시(청소년정책연구원) • 일반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임팩트 스쿨(가칭)을 통해 교육한 후 콘텐츠 기획, 영상, 캠페인 활동에 참여 • 디지털 기술 관련 정기적인 교육과 컨설팅